고흥군,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지원 늘린다

과수·채소·특용작물 등 2ha 이하 재배농가

총 214동에 사업비 12억8천4백만원 지원

고흥군은 과수 · 채소, 특용작물 등 2ha 이하 소규모 재배농가에 농산물의 상품성을 높이고 출하 조절로 농가 소득 증대에 큰 도움이 되고 있는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지원 사업을 대폭 확대 지원하여 총 214동의 사업비 12억8천4백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군은 올해 64동의 도비 매칭 사업비 3억8천만원을 확보하고 농업인들의 수요 요구를 받아들여 군비 9억원을 추가로 투입, 총 12억8천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9.9㎡규모 소형 저온저장고 214동을 지원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지원대상은 주민등록을 고흥에 둔 농업경영체, 농지원부 등록 농가로 과수 · 채소 등 원예농산물 재배면적 2ha미만 농가로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농가는 600만 원 사업비 중 50%를 지원받게 된다.

고흥군은 지난 1월 주소지 읍면을 통해 사업신청서를 접수받고 심사를 완료해, 이번 달 16일 고흥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거쳐 214농가를 확정했다.

또한, 보조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시공 능력, A/S 등이 검증된 시공업체를 공모를 통해 선발하여 전문업체 7개소를 선정하고 농가 안전견실시공과 A/S 등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군 관계자는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 사업은 지역 농산물의 홍수 출하 예방과 신선도 유지 등 활용도가 높아 농업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는 만큼 군에서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동부취재본부 김택영 기자

광양희망도서관, 문체부 '1관 1단' 공모사업 선정

이달부터 본격 사업 추진

광양희망도서관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도서관문화진흥원에서 공모한'2021년 도서관·박물관·미술관 1관 1단' 운영기관에 선정돼 3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1관 1단' 사업은 도서관·박물관·미술관을 거점으로 지역 주민이 쉽게 문화와 예술을 접하도록 재능 있는 문화예술 동아리의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국 공공도서관 169개가 신청한 가운데 2차에 걸친 심사를 통해 최종 70개 기관이 선정됐으며, 선정된 기관은 문화예술 동호회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예산 300만 원을 지원받는다.

희망도서관은 사업 선정을 계기로 지역 내 문화예술 동아리인 '보금자리'와 협업해 어린이를 위한 동극 공연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상반기에는 동극 공연 영상을 촬영해 온라인으로 실시간 방송하거나 지역 내 어린이집에서 상영하고, 하반기에는 코로나19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추이에 따라 대면 방식으로 전환해 공연을 진행할 예정이다.

고근성 도서관운영과장은 "이번'1관 1단' 공모사업 운영을 통해 광양시 어린이들의 문화예술 공연에 대한 갈증이 해소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이 도서관을 활용해 문화예술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도록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금자리'는 동화구연을 배웠거나 연극에 관심 있는 주부들이 모여 2003년에 결성한 동화연극 자원봉사 동호회로, 결성 이후 도서관과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등을 찾아다니며 매월 동극 공연을 꾸준히 진행해 다른 문화예술 단체들에 귀감이 되고 있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보성군, 농어민 공익수당 54억 원 전액 조기 지급

보성군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전남형 농어민 공익수당' 54억 원을 3월 말까지 전액 지급한다고 밝혔다.

상 · 하반기 30만 원씩 나누어 지급할 계획이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민을 위해 60만 원 조기 지급을 결정했다.

지급 대상은 지난 201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현재까지 계속 보성군에 거주하고 있는 농 · 어 · 임업 경영체 경영주로 실제 농어 임업에 종사해야 한다.

60만원 조기 지급 결정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수령방법은 3월 15일부터 3월 31일까지 읍면에서 지정한 마을별 수령 날짜에 맞춰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본인 주소지 농협에 방문하면 된다.

수당 전액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인 '보성사랑 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이번 조기 지급으로 농어민은 물론 지역 내 소상공인들을 비롯한 자영업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농어민 공익 수당을 조기 지급하기로 결정한 후 신속한 후속 조치로 지역화폐 발행을 완료했다."라며 "농어민들이 받은 지역화폐를 빠른 시일 내 사용하여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보성=김덕순 기자

'순천만 소형 경전철' 스카이큐브, 순천시가 인수키로

허석 순천시장-순천에코트랜스, 인수절차 마무리

스카이큐브 경영활성화·흑자낼 방안 등 숙제남아

허석 순천시장과 ㈜순천에코트랜스(대표이사 이성록)가 2월26일 순천시청에서 스카이큐브 인수식을 하고 있다.

순천만의 랜드마크로 건설돼 수년만에 애물단지로 전락했던 '순천만 스카이큐브'의 소유권이 순천시로 넘어갔다.

1일 순천시는 허석 시장과 ㈜순천에코트랜스(대표이사 이성록)가 스카이큐브 인수식을 통해 순천시로의 스카이큐브 인수 절차를 마무리 지었다고 밝혔다. 인수식에는 범시민인수위원회 신택호 위원장이 입회했다.

양측은 시민인수위원회와 전문 용역사의 검토를 거쳐 추진한 내용을 담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 이행사항 및 인수 확인서'에 최종 서명했다.

이로써 지난해 6월 17일 대한상사중재원의 순천시로의 무상이전 중재판정이 모두 마무리됐다.

순천시는 앞으로 스카이큐브의 건물, 구축물, 궤도 차량을 포함한 스카이큐브 시스템 일체에 대해 소유자로서 관리하게 된다. 에코트랜스는 관리권과 차량 부품 등을 시에 넘겨주고 관리 범위에서 벗어날 예정이다.

시는 지난달 17일 순천 소형경전철 스카이큐브의 민간위탁 운영 우선협상대상자로 우이신설경전철운영㈜을 선정했다.

우이신설경전철운영㈜은 서울 우이신설선 위탁운영사로 철도차량을 제작하는 ㈜우진산전의 자회사이며 의정부경전철 위탁운영사인 ㈜우진메트로가 자매회사로 스카이큐브 위탁운영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시는 시설물 유지관리, 근로자 고용유지, 안전운행, 사업계획, 운영 활성화, 편의 증진 등에 대한 협상을 거치고 시민인수위원회의 승인이 나면 3월부터 위탁운영을 개시할 예정이다.

앞서 순천시는 지난해 6월 17일 중재판정이 확정된 후 7월 시민공청회 개최와 함께 시민과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시민인수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전문 용역사를 선정해 10여 차례에 걸친 회의와 현장 방문, 인수자료의 서면 검토 등을 통해 스카이큐브 인수 절차를 추진한 바 있다.

순천 스카이큐브는 포스코가 주장한 해지 시 지급금 1367억 원 없이 무상으로 모든 시설이 순천시로 넘어가는 만큼 향후 감가상각비나 차입금이자 등의 재정적 부담은 없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하지만 순천시로 관리권이 넘어간 만큼 스카이큐브의 경영 활성화와 적자 없이 흑자를 낼 수 있는 효율적인 활용 방안, 통합 입장권 발행, 노선 연장 방안 등이 숙제로 남았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여수시, 안전하고 바른 먹거리 학교급식 실현 '앞장'

초·중·고 무상급식·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 366억 투입

여수시가 올해 초·중·고등학교 무상급식과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에 시비 포함 366억 원을 투입해 안전하고 바른 먹거리로 학교급식 실현에 앞장선다.

시에 따르면 코로나19 여파로 지난 25일과 26일 단체 집합교육을 대신해 '학교 무상급식 및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 사업 지침교육'을 서면으로 실시했다.

시가 자체 제작한 사업 지침서를 307개소의 급식지원시설 및 학교 등에 제공해, 학교 무상급식 지원과 친환경식자재 지원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현장 급식 추진의 어려움을 돕고자 나섰다.

특히 GMO 사용 가공품을 차단하기 위해 간장, 된장, 두부 등 식재료 구입비 8억 원을 지원해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힘을 쏟는다.

급식시설과 급식 공급업체에 친환경농산물 바로 알고 먹기와 지역산 친환경 식자재 소비 권장 등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학생들에게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보다 예산을 늘렸다"면서 "앞으로도 급식 정상화와 학생 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수시는 지난해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농가의 판로 확보를 위해 전체 초·중·고등학교 가정에 친환경농·수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등으로 안전하고 바른 먹거리 공급에 앞장서 왔다.

기동취재본부